

#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Text of  
the five-character Regulated Verses in *Hyangsansamchebeop*

강 순 애 (Kang, Soon-Ae)\*\*

## ◁ 목 차 ▷

|                                              |                      |
|----------------------------------------------|----------------------|
| 1. 서론                                        | 5.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과   |
| 2. 백거이(白居易)의 삶과 문학                           |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비교 |
| 3.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오언율시의<br>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 6. 결론                |
| 4.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오언율시의<br>내용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중 오언율시 72수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백거이(白居易)의 삶과 문학, 『향산삼체법』 오언율시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향산삼체법』과 주금성(朱金城)의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비교 순으로 살펴보았다.

『향산삼체법』의 오언율시는 72수 모두 『백거이문집』에서 선집되었는데, 『백거이집전교』를 참고하면, 권13/7수, 권14/4수, 권15/1수, 권16/4수, 권17/1수, 권19/3수, 권20/1수, 권23/1수, 권24/1수, 권25/6수, 권26/21수, 권27/16수, 권28/2수, 권34/3수, 권37/1수로 도합 72수이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당시의 벼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작시기는 50대의 저작이 가장 많이 선집되었고, 저작 장소는 주로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이었다. 백거이는 29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이후 다양한 벼슬을 거쳤는데, 이러한 벼슬살이는 저작시기 및 저작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되면서 시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시의 내용은 백거이의 일상들이 담겨진 것으로 ‘봄’ 25수, ‘술’ 16수, ‘가을’ 13수, ‘감회’ 12수, ‘이별’ 3수, ‘겨울’ 3수로 6분야의 72수이다.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 A본과 중국의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의 『백거이집전교』 B본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보면,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한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사례들,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한 사례들, A본과 B본의 글자 중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더 옳은 사례들, A본과 B본의 글자 중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B본의 글자가 더 옳은 사례들이 있었다. 둘째, B본에 나타나는 주석이 본문의 해석을 원만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셋째, A본과 B본의 시 제목이 같은데 B본의 주석에 시의 제목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본 연구는 2013년도 춘계 서지학회 · 한국서지학회 공동학술발표회(2013. 4. 5)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정 · 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3년 4월 30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 한문학 분야, 백거이 시를 연구하는 한시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 향산삼체법의 오언율시,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 주금성(朱金城)의 백거이집전교

### <ABSTRACT>

This paper engages in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72 poems of the five-character regulated verses, which appear in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It will explore several themes in the following order: the life and literature of Bai Juyi(白居易); the composition of the *Hyangsansamchebeop* poems; the collection of works and writing-related matters; and a comparison of *Hyangsansamchebeop* with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白居易集箋校).

All 72 poems of *Hyangsansamchebeop* were collected in Anthology of Poems by Bai Juyi(白居易文集). *Bai Juyi ji jian jiao* cites that there are 7 poems from Book 13, 4 poems from Book 14, 1 poem from Book 15, 4 poems from Book 16, 1 poem from Book 17, 3 poems from Book 19, 1 poem from Book 20, 1 poem from Book 23, 1 poem from Book 24, 6 poems from Book 25, 21 poems from Book 26, 16 poems from Book 27, 2 poems from Book 28, 3 poems from Book 34, and 1 poem from Book 37, making 72 poems in all.

The poems included in *Hyangsansamchebeop* show us matters related to the writing of the poems such as the time, place or government post Bai was in when he wrote the works. Bai selected the most works from his 50s and from his writings done in Changan and Luoyang. Bai Juyi went through various government posts after passing the jinsasi(進士試) examinations at 29 years of age. His official life bore close relations to the writing time and place and had a great influence in the creation of the poems. The poems contain scenes of Bai Juyi's everyday life and surroundings with 25 poems for "Spring", 16 poems for "Wine", 13 poems for "Autumn", 12 poems for "Sentiments", 3 poems for "Partings", and 3 poems for "Winter". Altogether, there are 72 poems in 6 categories.

A comparison done of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Model A), created around the 1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with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 (Model B)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original texts of Model A and Model B have differences in letters: there are instances of Model A and Model B having similar Chinese characters so that there are no great differences in the translation; instances of Model A and B having contrasting letters so tha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differences in translation; instances where Model A and B have contrasting letters yet differences in translation are clear; instances where later annotations show that the letter of Model A is more correct; and instances where later annotations show that the letter of Model B is more correct. Secondly, the annotations which appear in Model B complete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Thirdly, the poems in Model A and Model B have the same titles, yet Model B sometimes has different titles for the poems in the anno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most fundamental studies of Bibliography, Chinese Literature, Chinese poetry which includes the study of Bai Juyi's poetry.

Key words: *Hyangsansamchebeop*,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five-character Regulated Verses of *Hyangsansamchebeop*, *Bai Juyi ji jian jiao*, Zhu Jincheng's *Bai Juyi ji jian jiao*

## 1. 서론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은 조선의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이용(李瑢)이 백거이(白居易)의 시집 중에서 오언율시·칠언율시·칠언절구 가운데 185수를 뽑아 세종 27년(1445)경에 편찬하여 간행한 단권본이다. 안평대군이 백거이의 시를 왜 선집하였는지는 『향산삼체법』 뒤에 붙인 그의 발문에 잘 나타난다. 발문에 의하면,<sup>1)</sup> “백거이의 시는 자못 소회를 푸는 맛이 있어 達道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한다. 옛 사람 중에 그 시를 편집한 이가 혹은 養恬<sup>2)</sup>이라 하고 혹은 助道라 했다. [일부 중략] 이 책을 출판하여 이름을 『향산삼체법』이라 하고 달도한 자들과 더불어 읽으려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백거이의 문집은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고, 선집인 『향산삼체법』도 초주갑인자본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았고, 후대의 번각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과 이설들이 무성하였다. 필자는 2010년 4월에 중종 10년(1515)경에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으로 간행한 국내외의 유일본인 『향산삼체법』을 발굴하여 그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하였다.<sup>3)</sup> 이로 인해 기존의 이설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 판본은 국내에서 『향산삼체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저본이지만,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유통된 여러 판본과 내용의 비교가 필요하고, 그 결과의 바탕위에서만 텍스트의 이해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유통된 판본에 대해서는 주금성(朱金城)이 명(明) 만력(萬曆) 34년

1)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世宗 27年(1445) 跋文.

“白樂天之詩 頗有遺懷之作 故達道之人 率多愛之 古人選錄其詩者 或名曰養恬 或名曰助道 …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香山三體法 庶幾與達道者共之云 乙丑六月 匪懈堂書.”

2) 『莊子』 外篇 第16 繕性.

“古之治道者 以恬養知 知生而無以知爲也 謂之以知養恬 [옛날의 도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욕심을 끊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지혜를 길렀다. 나면서부터 지혜로써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를 두고서 지혜로써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담담함을 기르는 것이라 말한다].”

3) 姜順愛,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1606)에 마원조(馬元調) 간행의 『백거이장경집(白居易長慶集)』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간본으로 전주(箋注)한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를 출간하였다. 백거이 시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과 『백거이집전교』를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 중 오언율시 72수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 조사 및 내용분석을 통해 백거이의 삶과 문학, 오언율시의 구성, 선집 및 저작관련사항을 밝히고, 『향산삼체법』에 실린 오언율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초주갑인자본 『향산삼체법』과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텍스트 및 교감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 분야, 한문학 분야, 백거이 시를 연구하는 한시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 2. 백거이(白居易)의 삶과 문학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하남성(河南省) 신정현(新鄭縣) 사람으로 자(字)는 낙천(樂天), 호(號)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또는 취음선생(醉吟先生)이라고도 하였다. 시호는 문(文)이며 중국 중당시대(中唐時代, 766~826)의 시인이다. 정원(貞元) 16년(800) 29세 때 최연소로 진사에 급제하였고, 이어 서판발취과(書判拔萃科), 재식겸무명어체용과(才識兼茂明於體用科)에 연속 합격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 좌습유(左拾遺) 등의 관직에 발탁되었다. 원화(元和) 10년(815) 재상 무원형(武元衡)의 암살사건에 관하여 직언을 하다가 조정의 분노를 사 강주사마(江州司馬)로 좌천되었다. 원화(元和) 15년(820) 목종(穆宗)이 즉위하자 낭중(郎中)이 되어 중앙으로 복직했고, 장경(長慶) 2년(822) 이후 항주자사(杭州刺史), 소주자사(蘇州刺史)를 거쳐 회창(會昌) 2년(842) 형부상서(刑部尙書)를 끝으로 관직에서 은퇴했다.<sup>4)</sup>

백거이는 중국문학사에서 당 시기에 배출된 많은 시인들 중 이백(李白)과 두보(杜甫) 이후 가장 걸출한 시인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백거이는 장안에서 벼슬을 하거나 임지(任地)에 나가거나 많은 친구들과 시를 주고 받았는데, 이들이 모두 당시에 저명한 시인, 문학가, 정치가로 예를 들면, 한유(韓愈), 장적(張籍), 왕건(王建), 양거원(楊巨源), 서응(徐凝), 이신(李紳), 우승유(牛僧孺), 두원영(杜元穎), 전휘(錢徽), 엄휴부(嚴休復), 배도(裴度), 위처후(韋處厚), 최군(崔群), 양우경(楊虞卿), 영호초(令狐楚), 가속(賈餗), 서원여(舒元興), 곽행여(郭行餘), 이건(李建), 원종간(元宗簡), 최현량(崔玄亮), 이종민(李宗閔), 이량(李諒), 심전사(沈傳師) 등이다. 그는 우승유와 이덕유(李德裕)의 양당의 인물과도 가까웠으며 우승유 쪽 사람들과 더 가까웠다. 전기(傳奇) 작가인 진홍(陳鴻), 유우석(劉禹錫), 원진(元稹)은 평생의 막역한 친구였다.<sup>5)</sup>

백거이가 살았던 중당 시대는 안사(安史)의 난을 겪은 후로 당왕조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시대였다. 백거이는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정치에 참여하였고 평생 동안 관직을 지낸 문인이었다. 그는 정치가나 사상가라기보다는 문학적 감성을 지닌 시인이었으며 스스로 ‘시마(詩魔)’라고 할 정도로 시작에 몰두하였다. 그는 전 생애를 두고 본다면 풍유시인(諷諭詩人)이라기보다는 한적시인(閑適詩人), 감상시인(感傷詩人)에 가까웠다.<sup>6)</sup>

그의 작품에는 고체시(古體詩), 금체시(今體詩), 악부(樂府), 가행(歌行), 부(賦) 등의 시가 및 지명(誌銘), 제문(祭文), 찬(贊), 기(記) 등에 이르는 모든 문학 형식을 망라했다. 백거이는 문학으로써 정치이념을 표현하고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을 문학 활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원화(元和) 10년(815) 강주사마로의 좌천과 목종의 죽음은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 문학으로부터 탈피하여 인생의 문학을 추구하게 되었다. 장경(長慶) 4년(824) 목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원진(元稹)에 의해

4)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11 (서울: 평민사, 2008), 427.

5)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4-5.

6) 김경동 편저, 『백거이시선』 (도서출판미디어, 2001), 8.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50권이 편찬되었다. 당시 백거이의 나이는 53세였으며 ‘장경(長慶)’은 목종의 죽음과 동시에 새로이 바뀐 연호였다. 따라서 『백씨장경집』은 죽은 천자의 후한 대접을 그리워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태화(太和) 9년(835)에 백거이가 그의 문집을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 보낸 것은 60권본, 개성(開成) 원년(836)에 동도(東都) 승선사(勝善寺)에 보낸 것은 65권본, 개성(開成) 4년(839) 소주(蘇州) 선림사(禪林寺)로 보낸 것은 67권본이었다. 그때그때 모은 문집의 분량이 달랐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각각의 권수가 다르다. 여하튼 그의 문집은 원진에 의해 편찬된 50권 이외에 후집(後集) 20권이 정리되었고, 이어서 회창(會昌) 5년(845)에 5권의 속후집(續後集)이 편찬됨으로써 함께 75권의 대집(大集)이 완성되었다. 회창 6년(846) 8월, 75세의 나이로 낙양(洛陽) 이도리(履道里)에서 생애를 마감했다.<sup>7)</sup>

백거이가 지은 작품 수를 보면, 회창 5년(845) 5월 백거이가 자신의 마지막 문집 편찬이었던 『백씨문집(白氏文集)』을 완성하고 지은 ‘白氏長慶集後序’에 의하면, 3,840편이다. 다만 백거이가 회창 6년(846)에 세상을 떠났으니 회창 5년(845) 5월 이후의 작품이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평생의 총 편수라고 하기 어렵다.<sup>8)</sup>

백거이는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시를 편집하였다.<sup>9)</sup> 그 중에서 2차 편집이 이루어졌던 장경(長慶) 4년까지만 풍유시(諷諭詩)·한적시(閑寂詩)·감상시(感傷詩)·잡율시(雜律詩)의 4분류법을 적용했고, 이후로는 격시(格詩)와 율시(律詩)의 2분류법을 적용했다. 백거이는 모두 75권의 시문집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71권이 남아 있다.

7)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9b0650a>> [cited 2008. 11. 26].;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문이재, 2002), 97-106.

8) 金卿東, “白居易詩文研究,” 『중국문학연구』 21(2000), 79.

9)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8.

### 3.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오언율시의 구성, 선집 및 저작 관련 사항

「향산삼체법」 오언율시의 시 구성은 제1수부터 제72수(제1제-제41제)까지 이들의 구성 체계에 대해 <표 1>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1> 「향산삼체법」 오언율시 제1수-제72수(제1제-제41제)

| 구분              | 시의 제목(운자)<br>『백거이집전교』 수록 권수       | 시작의 시기, 장소, 벼슬                | 비고                |
|-----------------|-----------------------------------|-------------------------------|-------------------|
| 제1수(1장전면)       | 對琴待月 (支), 권26(p.1790)             | 太和 2(828), 長安, 刑部侍郎           | 백거이<br>57세        |
| 제2수(1장전면)       | 賦得高原草送別 (庚), 권13(p.768)           | 貞元 3(787), 長安                 | 16세               |
| 제3수(1장후면)       | 春送盧秀才下第遊太原謁嚴尚書<br>(侵), 권13(p.751) | 元和 2(807), 長安, 蓋屋尉            | 36세               |
| 제4수(1장후면)       | 送文暢上人東遊 (東), 권13(p.754)           | 元和 2(807), 長安, 蓋屋尉            | 36세               |
| 제5수(1장후면-2장전면)  | 社日關路作 (先), 권13(p.755)             | 貞元 16(800)-貞元 17(801)         | 29-<br>30세        |
| 제6수(2장전면)       | 旅次景空寺宿幽上人院 (刪),<br>권13(p.771)     | 貞元 16(800), 襄州                | 29세,<br>進仕試<br>합격 |
| 제7수(2장전면-2장후면)  | 除夜寄弟妹 (庚), 권13(p.775)             | 貞元 3(787), 江南                 | 16세               |
| 제8수(2장후면)       | 客中守歲 (眞), 권13(p.787)              | 貞元 16(800) 以前                 | 29세<br>이전         |
| 제9수(2장후면-3장전면)  | 題施山人野居 (陽), 권14(p.792)            | 貞元 16(800)-貞元 17(1801)        | 29-<br>30세        |
| 제10수(3장전면)      | 中書夜直夢忠州 (尤),<br>권19(p.1236)       | 長慶 원년(821), 長安, 知制誥           | 50세               |
| 제11수(3장전면)      | 夏夜宿直 (庚), 권19(p.1292)             | 長慶 2(822), 長安, 中書舍人           | 51세               |
| 제12수(3장후면)      | 新磨鏡 (歌), 권14(p.814)               | 元和 5(807), 長安, 翰林學士           | 39세               |
| 제13수(3장후면)      |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 (歌),<br>권14(p.824)    | 元和 13(818), 江州, 江州司馬          | 47세               |
| 제14수(3장후면-4장전면) | 夜坐 (庚), 권14(p.861-862)            | 元和 5(814)                     | 43세               |
| 제15수(4장전면)      | 途中感秋 (支), 권15(p.940)              | 元和 10(815), 長安에서 江州로<br>가는 도중 | 44세               |
| 제16수(4장전면-4장후면) | 遊寶稱寺 (眞), 권16(p.990)              |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 45세               |
| 제17수(4장후면)      | 除夜 (先), 권16(p.1015)               |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 45세               |
| 제18수(4장후면-5장전면) | 西河雨夜送客 (尤), 권16(p.1047)           | 元和 12(817), 江州, 江州司馬          | 46세               |
| 제19수(5장전면)      | 松下琴贈客 (寒), 권25(p.1716)            | 太和 원년(827), 長安, 秘書監           | 56세               |
| 제20수(5장전면)      | 湖亭望水 (歌), 권16(p.993)              | 元和 11(816), 江州, 江州司馬          | 45세               |

| 구분                | 시의 제목(운자)<br>『백거이집전고』 수록 권수      | 시작의 시기, 장소, 벼슬                      | 비고         |
|-------------------|----------------------------------|-------------------------------------|------------|
| 제21수(5장후면)        | 吳宮詞(歌), 권17(p.1123)              | 元和 13(818), 江州, 江州司馬                | 47세        |
| 제22수(5장후면)        | 偶題閣下廳(東),<br>권19(p.1277-1278)    | 長慶 2(822), 長安, 中書舍人                 | 51세        |
| 제23수(5장후면-6장전면)   | 小歲日對酒吟錢湖州所寄詩(支),<br>권20(p.1350)  | 長慶 3(823), 杭州, 杭州刺史                 | 52세        |
| 제24수(6장전면)        | 秋晚(東), 권23(p.1588)               | 長慶 4(824), 洛陽, 太子左庶子<br>分司          | 53세        |
| 제25수(6장전면-6장후면)   | 船夜援琴(侵), 권24(p.1616)             | 寶曆元年(825), 洛陽에서 蘇州<br>로 가는 도중, 蘇州刺史 | 54세        |
| 제26수(6장후면)        | 秋齋(冬), 권25(p.1717)               | 太和 원년(827), 長安, 秘書監                 | 56세        |
| 제27수(6장후면-7장전면)   | 履道春居(侵), 권25(p.1744)             | 太和 2(828), 洛陽, 秘書監                  | 57세        |
| 제28수(7장전면)        | 北窓閑坐(陽), 권25(p.1763)             | 太和 2(828), 長安, 刑部侍郎                 | 57세        |
| 제29수(7장전면)        | 池上(靑), 권25(p.1776)               | 太和 5(831), 洛陽, 河南尹                  | 60세        |
| 제30수(7장후면)        | 惜洛花(侵), 권25(p.1848)              | 太和 6(832), 洛陽, 河南尹                  | 61세        |
| 제31수(7장후면)        | 和杜錄事題紅葉 권27(p.1918)              | 太和 6(832), 洛陽, 河南尹                  | 61세        |
| 제32수(7장후면-8장전면)   | 池上贈韋山人(眞), 권28(p.1942)           | 太和 4(830), 洛陽, 太子賓客分司               | 59세        |
| 제33수(8장전면)        | 西風(微), 권28(p.1954)               | 太和 4(830), 洛陽, 太子賓客分司               | 59세        |
| 제34수(8장전면-8장후면)   | 雨後秋涼(眞), 권34(p.2356)             | 開成 3(839), 洛陽, 太子少傅分司               | 67세        |
| 제35수(8장후면)        | 自詠(東), 권34(p.2362)               | 開成 3(839), 洛陽, 太子少傅分司               | 67세        |
| 제36수(8장후면-9장전면)   | 酬夢得暮秋晴夜對月相憶(支),<br>권34(p.2371)   | 開成 3(839), 洛陽, 太子少傅分司               | 67세        |
| 제37수(9장전면)        | 新秋夜雨(尤), 권37(p.2573)             | 開成 5(841)-會昌 5(845), 洛陽             | 69-<br>74세 |
| 제38수(9장전면)        | 何處春先到(靑),<br>권27(p.1905-1906)    | 太和 4(830), 洛陽, 太子賓客分司               | 59세        |
| 제39수(9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1(麻),<br>권26(p.1827-1838) | 太和 3(829), 長安, 刑部侍郎                 | 58세        |
| 제40수(9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2(麻)                      | "                                   | "          |
| 제41수(9장후면-10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3(麻)                      | "                                   | "          |
| 제42수(10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4(麻)                      | "                                   | "          |
| 제43수(10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5(麻)                      | "                                   | "          |
| 제44수(10장전면-10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6(麻)                      | "                                   | "          |
| 제45수(10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7(麻)                      | "                                   | "          |
| 제46수(10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8(麻)                      | "                                   | "          |
| 제47수(10장후면-11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9(麻)                      | "                                   | "          |
| 제48수(11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10(麻)                     | "                                   | "          |
| 제49수(11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11(麻)                     | "                                   | "          |
| 제50수(11장전면-11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12(麻)                     | "                                   | "          |
| 제51수(11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13(麻)                     | "                                   | "          |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 구분                | 시의 제목(운자)<br>『백거이집전교』 수록 권수        | 시작의 시기, 장소, 벼슬        | 비고  |
|-------------------|------------------------------------|-----------------------|-----|
| 제52수(11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14 (麻)                      | "                     | "   |
| 제53수(11장후면-12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15 (麻)                      | "                     | "   |
| 제54수(12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16 (麻)                      | "                     | "   |
| 제55수(12장전면)       | 和春心二十首 17 (麻)                      | "                     | "   |
| 제56수(12장전면-12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18 (麻)                      | "                     | "   |
| 제57수(12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19 (麻)                      | "                     | "   |
| 제58수(12장후면)       | 和春心二十首 20 (麻)                      | "                     | "   |
| 제59수(12장후면-13장전면) | 何處難忘酒七首 1 (眞),<br>권27(p.1898-1899) | 太和 4(830), 洛陽, 太子賓客分司 | 59세 |
| 제60수(13장전면)       | 何處難忘酒七首 2 (靑)                      | "                     | "   |
| 제61수(13장전면)       | 何處難忘酒七首 3 (先)                      | "                     | "   |
| 제62수(13장전면-13장후면) | 何處難忘酒七首 4 (東)                      | "                     | "   |
| 제63수(13장전면-13장후면) | 何處難忘酒七首 5 (豪)                      | "                     | "   |
| 제64수(13장후면)       | 何處難忘酒七首 6 (歌)                      | "                     | "   |
| 제65수(13장후면-14장전면) | 何處難忘酒七首 7 (元)                      | "                     | "   |
| 제66수(14장전면)       | 不如來飲酒七首 1 (鹽),<br>권27(p.1899-1901) | 太和 4(830), 洛陽, 太子賓客分司 | 59세 |
| 제67수(14장전면)       | 不如來飲酒七首 2 (尤)                      | "                     | "   |
| 제68수(14장후면)       | 不如來飲酒七首 3 (覃)                      | "                     | "   |
| 제69수(14장후면)       | 不如來飲酒七首 4 (元)                      | "                     | "   |
| 제70수(14장후면)       | 不如來飲酒七首 5 (文)                      | "                     | "   |
| 제71수((15장전면)      | 不如來飲酒七首 6 (蒸)                      | "                     | "   |
| 제72수((15장전면)      | 不如來飲酒七首 7 (豪)                      | "                     | "   |

위의 <표 1>의 구성과 저작사항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향산삼체법』의 오언율시는 72수인데 제1수-제38수까지는 단일 제목이고, 제39수-제58수, 제59수-제65수, 제66수-제72수는 연작시이다.

② 시의 운자는 모두 평성(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支’(제1수), ‘庚’(제2수), ‘侵’(제3수), ‘東’(제4수), ‘先’(제5수), ‘刪’(제6수), ‘庚’(제7수), ‘眞’(제8수), ‘陽’(제9수), ‘尤’(제10수), ‘庚’(제11수), ‘歌’(제12수), ‘歌’(제13수), ‘庚’(제14수), ‘支’(제15수), ‘眞’(제16수), ‘先’(제17수), ‘尤’(제18수), ‘寒’(제19수), ‘歌’(제20수), ‘歌’(제21수), ‘東’(제22수), ‘支’(제23수), ‘東’(제24수), ‘侵’(제25수), ‘冬’(제26수),

‘侵’(제27수), ‘陽’(제28수), ‘靑’(제29수), ‘侵’(제30수), ‘眞’(제31수), ‘眞’(제32수), ‘微’(제33수), ‘眞’(제34수), ‘東’(제35수), ‘支’(제36수), ‘尤’(제37수), ‘靑’(제38수), ‘麻’(제39수-제58수), ‘眞·靑·先·東·豪·歌·元’(제59수-제65수), ‘鹽·尤·覃·元·文·蒸·豪’(제66수-제71수)이다.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眞’ 6회, ‘歌’ 5회, ‘東’ 5회, ‘尤’ 4회, ‘庚’ 4회, ‘支’ 4회, ‘侵’ 4회, ‘先’ 3회 등이다. 5율은 2·4·6·8구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것이 정격이고 5율의 1구에서 압운하는 것이 변격이다. 이러한 변격의 예를 보면, 제14수, 제24수, 제27수, 제32수, 제35수 등이다.<sup>10)</sup>

③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오언율시는 모두 『백거이문집』에서 선집되었는데, 주금성(朱金城)의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를 참고하면, 권13/7수, 권14/4수, 권15/1수, 권16/4수, 권17/1수, 권19/3수, 권20/1수, 권23/1수, 권24/1수, 권25/6수, 권26/21수, 권27/16수, 권28/2수, 권34/3수, 권37/1수로 도합 72수이다.

④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당시의 벼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작시기는 30세 이전에 6수, 30대에 3수, 40대에 8수, 50대에 48수, 60대-70대 사이에 7수이다. 50대의 저작이 48수로 가장 많이 선집되었고, 40대, 60대, 30세 이전은 6-8수 사이이며, 30대가 3수로 가장 적었다.

30세 이전에는 6수가 선집되었는데, 16세인 정원(貞元) 3년(787)에 제2수와 제7수, 29세 이전인 정원 16년(800) 이전에 제6수와 제8수, 29세와 30세 사이인 정원 16년(800)-정원 17년(801)에 제5수와 제9수이다. 30대에는 3수가 선집되었는데, 36세인 원화(元和) 2년(807)에 제3수와 제4수, 39세인 원화 5년(810)에 제12수이다. 40대에는 8수가 선집되었는데, 43세인 원화 9년(814)에 제14수, 44세인 원화 10년(815)에 제15수, 45세인 원화 11년(816)에 제16수, 제17수, 제20수, 46세이던 원화 12년(817)에 제18수, 47세이던 원화 13년(818)에 제13수와 제21수

10) 姜順愛,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18.

이다. 50대에는 48수가 선집 되었는데, 50세인 장경(長慶) 원년(821)에 제10수, 51세이던 장경 2년(822)에 제11수, 제22수, 52세인 장경 3년(823)에 제24수, 53세인 장경 4년(824)에 제24수, 54세인 보력(寶曆) 원년(825)에 제25수, 56세인 태화(太和) 원년(827)에 제20수, 제26수, 57세인 태화 2년(828)에 제1수, 제27수, 제28수, 58세인 태화 3년(829)에 제39수-제58수의 20수, 59세인 태화 4년(830)에 제32수, 제33수, 제38수, 제59수-제65수의 7수, 제66수-제72수의 7수이다. 60대-70대 사이에는 7수가 선집 되었는데, 60세인 태화 5년(830)에 제29수, 61세인 태화 6년(831)에 제30수, 제31수, 67세인 개성(開成) 3년(839)에 제34수, 제35수, 제36수, 69세-74세 사이인 개성 5년(840)-회창(會昌) 5년(845)에 제37수가 선집 되었다.

둘째, 저작 장소는 장안(長安) 31수, 낙양(洛陽) 26수, 강주(江州) 6수, 강남(江南) 1수, 항주(杭州) 1수, 양주(襄州) 1수, 장안-강주 1수, 낙양-소주(蘇州) 1수, 장소미상 4수였다. 저작 장소는 주로 장안과 낙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0대 이전의 저작 장소는 장안 1수, 강남 1수, 양주 1수, 장소미상이 3수이었다. 30대는 장안이 3수이었다. 40대는 강주 6수, 장안에서 강주 사이가 1수, 장소미상이 1수이었다. 50대는 장안이 27수, 항주 1수, 낙양 19수, 낙양에서 소주 사이가 1수이었다. 60대-70대 사이에는 낙양이 7수이었다.

셋째, 백거이의 저작과 관련된 벼슬을 보면, 29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이후, 다양한 벼슬을 거쳤는데, 이러한 벼슬살이는 그의 저작시기 및 저작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되면서 시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0대 이전을 보면, 29세인 정원 16년(800)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백거이가 과거를 향한 열망과 장안에서의 생활 등을 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30대에는 36세인 원화 2년(807)에 원진과 함께 제거(制舉: 중국 당나라 때 황제의 명령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에 합격하여 주질위(鑿屋尉)에 제수되었다. 39세인 원화 2년(807) 11월에 조서(詔書)를 담당하는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제수되었다. 이 시기는 직무수행에서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시가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면서 풍유시(諷諭詩)를 많이 지은 시기로 간주된다. 40대에는 강주사마(江州司馬) 벼슬을 하였는데 이 시기는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기로 풍유시와 한적시(閑適詩)

를 많이 지었다. 50대는 지제고(知制誥), 중서사인(中書舍人), 항주자사(杭州刺史), 소주자사(蘇州刺史), 비서감(秘書監), 형부시랑(刑部侍郎), 태자빈객분사(太子賓客分司)의 벼슬을 지내면서 비풍유시(非諷諭詩)를 많이 지었다. 60대와 70대 사이는 하남윤(河南尹), 태자소부분사(太子少傅分司)를 지내면서 역시 비풍유시(非諷諭詩)를 많이 지었다.

#### 4.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오언율시의 내용

『향산삼체법』 오언율시의 내용에는 대부분 백거이의 일상이 담겨 있다. 그의 일상 안에 담겨진 것을 몇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면 ‘봄’ 25수, ‘술’ 16수, ‘가을’ 13수, ‘감회’ 12수, ‘이별’ 3수, ‘겨울’ 3수로 6개 분야의 72수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봄을 노래한 것

‘봄’을 노래한 것은 제9수, 제13수, 제16수, 제27수, 제38수, 제39수-제58수의 25수이다.

백거이가 ‘봄’을 노래한 시의 내용들은 따사롭고 정겨우며 행복하다. 제9수 ‘題施山人野居’는 백거이가 29세와 30세 사이인 정원 16년(800)-정원 17년(1801) 사이에 지은 작품이다. 시산인(施山人)이 교야(郊野)에서 거처함을 봄 논의 벗모와 밤불에 달이는 차의 향기에 비유하고 있다.

제13수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는 47세이던 원화 13년(818) 강주사마로 있을 때의 작품이다. 상사일에 임금님이 곡강에서 베풀어주시는 잔치에 펼쳐진 봄날의 광경을 당나라 순종의 태평성대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제16수 ‘遊寶稱寺’는 원화 11년(816) 강주사마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강주 여산(廬山)의 보칭사에서 노닐면서 사찰 주변의 봄 경치를 즐기고 노래하였다.

제27수의 ‘履道春居’는 57세이던 태화 2년(828) 낙양에서 비서감(秘書監)으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그는 낙양 이도리(履道里)에서 살면서 지점 피부로 느끼던 봄의 자연을 노래하였다. 제38수 ‘何處春先到’는 태화 4년(830) 낙양에서 태자빈 객분사(太子賓客分司)로 있을 때 지은 시이다. ‘낙양의 봄은 어느 곳에 봄이 먼저 오는 가’를 제1구로 시작하여 교량 동쪽과 물 북쪽에 있는 정자에 봄이 먼저 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얼어붙은 꽃나무가 아직 피지 않았지만 피꼬리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니 봄은 분명 오고 있다고 읊었다.

제39수-제58수의 ‘和春心二十首’는 태화 3년(829) 장안에서 형부시랑으로 재직당시에 지은 연작시이다. 시의 2·4·6·8구 끝 글자에 ‘麻’자 운자인 ‘家·花·車·斜’를 20수에 똑같이 반복 사용하여 당대 중기 당의 수도인 장안의 풍속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는 첫 구가 ‘何處春深好’로 시작하여, 제2구 앞부분에서 다시 ‘春深’으로 받는다. 봄이 정말 좋은데 좋은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며 자문하듯 상대방에게 대화를 건네듯 하면서 다음에 오는 여러 내용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다. 즉 ‘富貴家’(제39수), ‘貧賤家’(제40수), ‘執政家’(제41수), ‘方鎮家’(제42수), ‘刺史家’(제43수), ‘學士家’(제44수), ‘女學家’(제45수), ‘御史家’(제46수), ‘遷客家’(제47수), ‘經業家’(제48수), ‘隱士家’(제49수), ‘漁父家’(제50수), ‘潮戶家’(제51수), ‘痛飲家’(제52수), ‘上巳家’(제53수), ‘寒食家’(제54수), ‘博奕家’(제55수), ‘嫁女家’(제56수), ‘娶女家’(제57수), ‘妓女家’(제58수)의 봄을 노래하였는데, 내용은 매우 비평적이다. 제39수와 제40수는 부귀가와 빈천가를 대비하여 봄을 노래하고 있다. 제39수 부귀가(富貴家)에는 새처럼 빠르게 달리는 말이 있고, 후원의 꽃 노릇하는 기생들이 예쁘며, 비단으로 옷을 해 입은 무리들이 돌아다니고, 금은으로 수레를 장식할 정도로 사치를 누리니 오직 지는 해가 괴로울 정도라고 조소하고 있다. 제40수 빈천가(貧賤家)는 제39수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집의 정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도연명의 정원에는 풀만 무성하고, 맹씨의 사린(四隣)에는 꽃이 쓸쓸하게 지며, 노비는 빈곤으로 인해 품팔이 나가고, 아내는 시름겨워 짐품 팔러 나갔네. 곤궁하니 평탄한 길도 험난하여 험준한 길 오르기보다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41수부터 제46수까지는 재상가, 절도사,

주의 장관, 한림학사, 여학사(女學士),<sup>11)</sup> 어사 등 벼슬하는 사람들 집의 봄 풍경을 노래하였고, 제47수에는 귀양 간 사람의 쓸쓸한 봄을 노래하고 있다. 제48수부터 제58수까지는 경제가, 은사의 집, 어부의 집, 뱃사공의 집, 취객의 집, 삼진날 계모 임하는 집, 한식 맞이하는 집, 바둑놀이 하는 집, 딸 시집보내는 집, 장가드는 집, 기생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봄날 풍광들을 노래하고 있다.

## 4.2 술을 노래한 것

‘술’을 노래한 것은 제18수, 제23수, 제59수-제65수, 제66수-제72수의 16수이다.

제18수 ‘西河雨夜送客’은 46세이던 원화 12년(817)에 강주사마로 있을 때 서하에서 비 내리는 밤에 객을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비가 쏟아지는데 어두운 강물이 어둠속을 흐르고, 벗 삼아 누(樓)에 오를 달도 없다. 술자리가 끝나니 흥은 없고, 뜻을 울리고 떠난 손님의 배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였다. 제23수 ‘小歲日對酒吟錢湖州所寄詩’는 52세이던 장경 3년(823)에 항주자사(杭州刺史)로 있을 때, 친분이 두터운 호주자사(湖州刺史) 전휘(錢徽)로부터 시 한 수를 받고 혼자 술을 마시며 그리운 이에게 답하듯 읊은 글이다.

제59수-제65수의 ‘何處難忘酒’ 7수와 제66수-제72수의 ‘不如來飲酒’ 7수는 59세이던 태화 4년(830)에 낙양에 좌천되어 태자빈객분사(太子賓客分司)로 있을 때 한가하게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고 느낀 것들을 읊은 ‘勸酒十四首’수의 연작 시이다.<sup>12)</sup> ‘何處難忘酒’ 7수는 각각의 시구에 서로 다른 ‘眞·靑·先·東·豪·歌·元’의 운자를 사용하고 ‘어느 때 술을 잊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7수 첫머리에 똑같이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어 읊조리고 있다. 제59수는 장안에 아름

11) 여학가(女學家): 『신당서 新唐書』 권77에 의하면, 당 덕종(德宗)때 송정분(宋廷芬)의 딸 5명이 총명하고 글을 잘 지어 덕종의 부름을 받아 궁중에 머물면서 여학사로 불리워졌고, 그중 둘째인 송약소(宋若昭)는 상궁에 임명되었음.

12)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897.  
“予分秩東都, 居多暇日, 閒來輒飲, 醉後輒吟. 若無詞章, 不成謠詠, 每發一意, 則成一篇. 凡十四篇, 皆主於酒, 聊以自勸. 故以何處難忘酒, 不如來飲酒命篇.”

다운 기운이 새로워질 때 성적 좋게 과거시험에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조복이 편안히 몸에 맞을 때가 술을 잇기 어렵다. 제60수는 먼 이십년 전에 이별하였다가 객지에서 그 친구를 만나 정담을 나눌 때 한잔 술이 없이 친구간의 소회를 풀기 어렵다. 제61수는 부유한 집 미소년들이 봄날에 비단옷 입고 소원(小院)을 거닐면서 거문고를 뜯을 때 한잔 술이 없이 봄을 보내기 어렵다. 제62수는 가을의 물색(物色)인 귀뚜라미가 울고 오동나무 잎은 말라 떨어지는데 늙고 병든 늙은이인 백거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한다. 한잔 술이 없으면 자신의 서글픈 노년을 위로받기 어렵다. 제63수는 군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환영받을 때 한잔 술이 없으면 이기분을 대신하기 어렵다. 제64수는 장안성 동남문에서 많은 사람들과 송별할 때 한잔 술이 없으면 떠나고 보내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제65수는 조정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역말에서 사면하는 조서를 받고 축하객들이 성문으로 나올 때 한잔 술이 없이 괴로운 녀을 달래기 어렵다. ‘不如來飲酒’ 7수는 ‘鹽·尤·覃·元·文·蒸·豪’의 운자를 사용하여 와서 마시 술 마시는 것만 못하다고 노래하였다. 시의 첫구는 ‘莫…去’로 시작하고 제7구는 ‘不如來飲酒’로 반복하고 있다. ‘깊은 산에 가서 숨지 마라’, ‘농부가 되려 가지 마라’, ‘장사꾼 되려 가지 마라’, ‘군사 되어 멀리 가지 마라’, ‘장생법 배우러 가지 마라’, ‘벼슬길에 오르지 마라’, ‘어지러운 속세에 들어가지 마라’로 시작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술 마시느니만 못하니 술에 흠뻑 취해 보자는 취지를 실어 노래하였다.

### 4.3 가을을 노래한 것

‘가을’을 노래한 것은 제1수, 제5수, 제6수, 제12수, 제14수, 제15수, 제19수, 제24수, 제26수, 제31수, 제33수, 제34수, 제37수의 13수이다.

제1수 ‘對琴待月’은 백거이가 57세이던 태화 2년(828) 장안에서 형부시랑 때 지은 시인데, 선집자인 안평대군이 5언 율시 중 가장 앞에 두었다. 시의 핵심어는 거문고와 달과 가을이다. 맑게 갠 밤에 눕기 전 창가에서 거문고를 반려하여 달과 가을을 약속하고 있다. 달빛이 안개 속에서 나오길 기다리며 그윽한 소리와 맑은

경치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백거이 자신만이 알리라고 노래하였다. 5수 ‘社日關路作’은 29세와 30세 사이인 정원 16년(800)–정원 17년(1801) 사이에 지은 작품이다. 사일(社日: 입춘과 입추후 다섯 번째 戊日)에 함곡관(函谷關) 길은 바람이 불고 매미소리도 없어지려 한다. 역루 위에 서있으려니 관부 앞을 지나가길 꺼려하고 쓸쓸한 가운데 가을 정취가 괴롭다고 읊조렸다. 제6수 ‘旅次景空寺宿幽上人院’은 29세이던 정원 16년(800) 2월 14일 중서시랑(中書侍郎) 고영(高郢)의 문하에서 진사시에 합격한 후 양주(襄州) 경공사를 유람하고 절에서 느끼는 가을 정취를 읊은 시이다. 제12수 ‘新磨鏡’은 39세이던 원화 5년(810) 장안에서 한림학사(翰林學士) 때 지은 시이다. 가을이 오자 거울을 새로 닦는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백발이 성성하고 마음은 불교에 귀의하려 한다. 마지막 구는 인생이 꿈과 같다고 노래하였다.

제14수 ‘夜座’는 43세이던 원화 9년(814)에 지은 시이다. 백거이는 이 해 겨울 태자좌찬선대부(太子左贊善大夫)에 임명되기 전에는 하규(下邳)에 있었다. 하규에서 가을 밤 정취를 노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15수 ‘途中感秋’는 백거이가 원화 10년(814)에 장안에서 태자좌찬선대부(太子左贊善大夫)로 있다가 6월 3일 무원형(武元衡)의 피살사건에 자객의 체포를 상소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강주사마로 좌천되었다. 이 시는 강주로 좌천되어 가는 길에 가을을 감상하고 지은 시다. 가을철에 백발의 노쇠한 나그네가 고향과 벗을 뒤로 하고 귀양을 가면서 병고(病苦)와 노쇠(老衰)한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제19수 ‘松下琴贈客’은 56세이던 태화 원년(827) 장안에서 비서감으로 있을 때 가을날 소나무 아래에서 객에게 거문고를 들려주며 지은 시이다.

제24수 ‘秋晚’은 53세 되던 장경 4년(824)에 낙양(洛陽)에서 태자좌서자분사(太子左庶子分司)로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낙양 늦가을의 정취를 노래하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와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제26수 ‘秋齋’는 태화 원년(827) 장안에서 비서감(秘書監)으로 있으면서 쓸렁한 가을 집에서 느끼는 자신의 병든 모습에 대한 심정을 묘사하였다. 제31수는 ‘和杜錄事題紅葉’은 61세이던 태화 6년(832) 낙양(洛陽)에서 하남윤(河南尹)으로 있을 때 두녹사(杜錄事)의 흥엽시

에 화답하여 10월산의 서리 맞은 붉은 낙엽을 노래한 것이다. 제33수 ‘西風’은 태화 4년(830)에 낙양에서 태자빈객분사(太子賓客分司)로 있으면서 가을바람이 부는 정경을 보고 풍경화를 그리듯 묘사하였다. 제34수 ‘雨後秋涼’은 67세이던 개성 3년(839)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太子少傅分司)로 있으면서 비 온 뒤의 가을날의 정취를 가난하고 병들고 한가한 자신의 모습에 견주어 노래하였다. 제 37수 ‘新秋夜雨’는 개성 5년(841)-회창 5년(845) 사이에 낙양에서 첫가을에 내리는 밤비의 정취를 그려내고 있다.

#### 4.4 감회를 노래한 것

‘감회’를 노래한 것은 제10수, 제11수, 제20수, 제21수, 제22수, 제25수, 제28수, 제29수, 제30수, 제32수, 제35수, 제36수의 12수이다.

제10수 ‘中書夜直夢忠州’는 장경 원년(821)에 50세 되던 해에 장안에서 지제고(知制誥)로 있을 때 중서성에서 숙직하다가 꿈에 충주(忠州)에 가서 놀던 감회를 적은 것이다. 제11수 ‘夏夜宿直’은 51세이던 장경 2년(822)에 장안에서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있을 때 승명루(承明廬)<sup>13)</sup>에서 여름 숙직을 하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것이다. 제20수 ‘湖亭望水’는 45세이던 원화 11년(816) 강주(江州)에서 강주사마(江州司馬)로 있을 때 남호인 팽려호(彭蠡湖; 지금의 강서성 양호(陽湖))가 오랜 비로 불어나고 갠 날 북녘 손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풍광을 노래한 것이다. 제21수 ‘吳宮詞’는 47세이던 원화 13년(818) 강주사마로 있으면서 강남의 대표적인 오궁을 노래 한 것이다. 제22수 ‘偶題閣下廳’은 51세이던 장경 2년(821) 장안에서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있으면서 각하청(閣下廳)의 풍광을 그린 시이다. 제25수 ‘船夜援琴’은 54세 되던 보력 원년(825)에 소주자사(蘇州刺史)의 보임을 받고 낙양에서 소주(蘇州)로 가는 도중에 배안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그 소회를 읊은 시이다. 제28수 ‘北窓閑坐’는 57세이던 태화 2년(828) 장안에서 형부시랑(刑部侍郎)으로 있으면서 북녘 창문에 한가로이 앉아서 창문 밖과 안을 대비

13) 승명루(承明廬): 한(漢) 나라 승명전(承明殿) 곁의 건물로 시신(侍臣)이 숙직하던 곳.

하여 묘사하고 한적함을 즐기는 감회를 그린 시이다. 제29수 ‘池上’은 60세이던 태화 5년(831)에 낙양에서 하남윤(河南尹)으로 있을 때 연못가의 한가로운 정경을 포착하여 노래한 것이다. 제30수 ‘惜落花’는 61세이던 태화 6년(832)에 역시 낙양에서 하남윤으로 있을 때 간밤에 불었던 비바람으로 인해 꽃이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시정(詩情)을 드러낸 것이다. 제32수 ‘池上贈韋山人’은 59세이던 태화 4년(830)에 낙양(洛陽)에서 태자빈객분사(太子賓客分司)로 있을 때 산뜻한 대나무 숲을 흐르는 연못가의 풍광을 읊조리고 종일토록 함께해 준 위치사에게 준 글이다. 제35수 ‘自詠’은 67세이던 개성 3년(839)에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太子少傅分司)로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을 그리듯 묘사한 것이다. 그의 모습은 수염이 희고 낮은 약간 붉은 삶을 따라 흘러온 병든 거사이자 다니며 흥얼대는 미친 영감으로 읊었다. 제36수 ‘酬夢得暮秋晴夜對月相憶’은 제35수와 같은 해에 유몽득(劉夢得)의 시 ‘늦가을 개인 밤 달을 대하고 서로 생각하다’라는 시에 화답하여 그리움의 감회를 읊었다.

#### 4.5 이별을 노래한 것

‘이별’을 노래한 것은 제2수, 제3수, 제4수의 3수이다.

제2수 ‘賦得高原草送別’은 16세이던 정원 3년(787)에 고원의 풀밭에서 떠나는 친구를 전송하며 그 이별의 심정을 노래한 글이다. 이 시는 백거이가 어린 나이에 지었지만 글의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일화가 남아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척언(唐摭言)』 권7에 의하면, “백거이가 과거를 응시하려 장안에 이르러 시를 가지고 저작랑 고향(顧況)을 찾아뵈었더니 고향이 훑어보고 ‘장안은 물건이 귀하니 살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요.’ 하였는데, ‘野火燒不盡 春風吹又生’이란 구절을 보고 고향이 ‘글귀가 이와 같으니 천하에 살아가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늙은이의 앞서 말은 농담이었소’ 하였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sup>14)</sup>

14) 『唐摭言』 卷七.

“白樂天初舉 名未振 以歌詩謁顧況 況譏之曰 ‘長安百物貴 居大不易’ 及至賦得原上草送友人詩曰 ‘野火燒不盡 春風吹又生’ 況歎之曰 ‘有句如此 居天下甚難’ 老夫前言戲之耳.”

고황이 백거이의 시를 보고 들관의 더부룩한 풀은 한해에 한번 돌아나고 시드네의 다음 구절인 ‘野火燒不盡 春風吹又生 [풀은 들불에 다 타지 않고, 봄바람에 다시 돌아나네].’를 보고 시의 재주를 알아 본 일화임을 알 수 있다. 제3수 ‘春送盧秀才下第遊太原謁嚴尙書’는 36세이던 원화 2년(807)에 장안에서 주질위(整厓尉)로 있을 때 노수재(盧秀才)가 과거에 낙방하고 태원윤(太元尹) 엄수(嚴綬)를 배알하러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전송한 시이다. 제4수 ‘送文暢上人東遊’는 같은 해에 동쪽으로 유람하러 떠나는 문창(文暢) 상인을 전별하며 그 소회를 읊은 시이다.

#### 4.6 겨울을 노래한 것

‘겨울’을 노래한 것은 제7수, 제8수, 제17수의 3수이다.

제7수 ‘除夜寄弟妹’는 16세이던 정원 3년(787)에 강남에서 설달 그림날 잠은 오지 않고 갖가지 근심만 솟아나는데 아우와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며 노래한 것이다. 제8수 ‘客中守歲’는 29세 이전인 정원 16년(800) 이전에 객지에서 설달 그림날을 보내면서 고향생각에 눈물 흘리면서 쓴 것이다. 제17수 ‘除夜’는 45세이던 원화 11년(816) 강주의 강주사마로 있는 지 3년이 되는 설달 그림날에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 시이다.

### 5.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과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의 비교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과 중국의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의 「백거이집전교」를 비교하는 것은 각 시의 원문 해석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은 한국에서 간행된 것 중 현존하는 최초본이다. 주금성(朱金城)이 전주(箋注)한 「백거이집전교」는 명(明) 만력(萬曆) 34년(1606) 마원조(馬元調) 간행의 「백거이장경집(白

居易長慶集)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간본을 대비하여 교정한 것이다. 따라서 두 저서 간의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편의 상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A본, 주금성 전주의 『백거이집전교』를 B본으로 약칭하여 <표 2>로 비교하고자 한다.

<표 2>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과 주금성 전주의 「백거이집전교」의 비교

| 구분                       | 중종 10년<br>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br>(A본) | 주금성 전주의<br>『백거이집전교』<br>(B본) | 전주(箋注)                                                                                                          |
|--------------------------|------------------------------|-----------------------------|-----------------------------------------------------------------------------------------------------------------|
| 1) 제1수 제4구<br>제8구        | 與月有秋期<br>唯是我心知               | 與月有秋期<br>唯是我心知              | 『文苑英華』에는 '秋期'의 '秋'는 '愁'이고, '我心'의 '我'는 '好'임.                                                                     |
| 2) 제2수 제1구               | 離離原上草                        | 離離原上草                       | 汪本에는 '離離'가 '咸陽'임.                                                                                               |
| 3) 제4수 제1구<br>제6구        | 得道即無着<br>江行灑水蟲               | 得道即無着<br>江行灑水蟲              | 『文苑英華』에는 '灑'가 '慮'임.                                                                                             |
| 4) 제5수 제3구               | 青巖新有燕                        | 青巖新有燕                       | 盧校에는 '燕'이 '雁'임.                                                                                                 |
| 5) 제6수 제목<br>제3구         | 旅次景空寺宿幽上人院<br>暮鐘鳴鳥聚          | 旅次景空寺宿幽上人院<br>暮鐘鳴鳥聚         | 『文苑英華』에는 '旅次'가 '旅泊'임.<br>全詩에는 '鳴'이 '寒'임.                                                                        |
| 6) 제8수 제3구<br>제2구<br>제6구 | 始知爲客苦<br>思鄉淚滿山<br>防愁預惡春      | 始知爲客苦<br>思鄉淚滿山<br>防愁預惡春     | 『文苑英華』에는 '市'은 '襟'이고, '防愁'의 '防'은 '懷'임.                                                                           |
| 7) 제9수 제1구               | 得道應無着                        | 得道應無着                       | 着과 薰은 같은 뜻임.                                                                                                    |
| 8) 제10수 제2구              | 巴南城底遊                        | 巴南城裏遊                       | 底와 裏는 뜻의 차이가 애매함.                                                                                               |
| 9) 제11수 제목<br>제5구<br>제6구 | 夏夜宿直<br>寂寥挑燈坐<br>沈吟躑月行       | 夏夜宿直<br>寂寥挑燈坐<br>沈吟躑月行      | 汪本에는 '夏夜'가 '夏州'임.<br>宋本, 那波本, 盧校에 모두 '寞'이 '默'임.                                                                 |
| 10) 제12수 제1구             | 衰容當晚櫛                        | 衰容當晚節                       | 宋本, 那波本에는 '當晚節'이 '當晚櫛'임.<br>汪本에는 '當'이 '常'임.<br>全詩에는 '當晚櫛' 下注에 '常'은 '當'임, '櫛'은 '節'임.<br>城按에는 '節'과 '櫛'은 통한다고 하였음. |
| 11) 제13수 제목<br>제7구       |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br>共道昇平樂         |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br>共道昇平樂        | 馬本에 '上巳'를 '上元'으로 한 것은 잘못임.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함.                                                           |
| 12) 제14수 제2구             | 迢迢夜坐情                        | 迢迢夜坐情                       | 馬本에 '迢迢'를 '迢遞'로 되어 있는데,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함. 全詩의 한 주석에는 '迢遞'임.                                            |
| 13) 제15수 제7구             | 唯殘病與老                        | 唯殘病與老                       | 馬本과 汪本에 '殘'이 '憊'으로 되어 있는데, 宋本, 那波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汪本에는 '殘'이라 한 주석도 있고, 全詩에도 '憊'이라 한 주석도 있음.                 |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 구분                               | 중종 10년<br>초주갑인자훈임보자본<br>(A본)     | 주금성 전주의<br>『백거이집전교』<br>(B본)      | 전주(箋注)                                                                                                                                                                                                             |
|----------------------------------|----------------------------------|----------------------------------|--------------------------------------------------------------------------------------------------------------------------------------------------------------------------------------------------------------------|
| 14) 제16수 제2구<br>제5구              | 花塘欲嘓春<br>酒嫩傾金液                   | 花塘欲嘓春<br>酒嫩傾金液                   | 馬本과 汪本에 '嘓'가 '曉'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임. 宋本, 那波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교정함.<br>汪本에는 '嘓'라 한 주석도 있고, 全詩에도 '嘓'라 한 주석도 있음.<br>宋本, 那波本에 '嫩'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임.                                                                           |
| 15) 제18수 제목                      | 西河雨夜送客                           | 西河雨夜送客                           | 『文苑英華』에는 '西河'는 '江西'임.                                                                                                                                                                                              |
| 16) 제19수 제5구<br>제7구              | 寡鶴當微怨<br>慙君此傾聽                   | 寡鶴當微怨<br>慙君此傾聽                   | 何校에는 '寡'는 '寡',<br>黃校에는 '寡'는 '寮'임.                                                                                                                                                                                  |
| 17) 제20수 제4구                     | 風定綠無波                            | 風定綠無波                            | 宋本에는 '綠'은 '潔'임.                                                                                                                                                                                                    |
| 18) 제22수 제2구<br>제7구              | 深宜白髮翁<br>平生閑境界                   | 深宜白髮翁<br>平生閑境界                   | 宋本, 那波本, 汪本에는 '界'가 '思'임. 全詩에는 '思'로 주석되었음.                                                                                                                                                                          |
| 19) 제24수 제3구                     | 覺來蜚近壁                            | 覺寒蜚近壁                            | 馬本에는 '蜚'은 '螢'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宋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那波本에는 '螢'으로 되어 있음.                                                                                                                                            |
| 20) 제25수 제4구                     | 舟中祇有琴                            | 舟中只有琴                            | 祇와 只는 같은 뜻임.                                                                                                                                                                                                       |
| 21) 제30수 제4구                     | 園中一寸深                            | 園中一寸深                            | 馬本, 全詩에는 '一'은 '二'라 주석하였는데 잘못이다. 宋本, 那波本, 汪本,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br>全詩의 주에 '一'은 '一'이라 주석하였는데 잘못임.                                                                                                                        |
| 22) 제31수 제5구<br>제7구              | 連行排絳帳<br>解駐籃輿看                   | 連行排絳帳<br>解駐籃輿看                   | 汪本에 '絳帳'이 '絳葉'으로 주석한 것은 잘못이다.<br>『文苑英華』에는 '籃輿'의 '輿'가 '昇'로 되어 있음.                                                                                                                                                   |
| 23) 제32수 제목<br>제3구<br>제7구        | 池上贈韋山人<br>衆皆嫌好拙<br>獨憐韋處士         | 池上贈韋山人<br>衆皆嫌好拙<br>獨憐韋處士         | 『文苑英華』에는 제목은 '池上贈山人韋君'이고, 제3구의 '好拙'이 '拙好'이며, 제7구의 '獨憐'의 '獨'이 '猶'임.                                                                                                                                                 |
| 24) 제32수 제5구                     | 淺渠銷慢水                            | 淺渠銷慢水                            | 『文苑英華』에는 '銷慢水'의 '銷'가 '鋪'로 되어 있고, 全詩의 주에도 '銷'가 '鋪'로 되어 있음.                                                                                                                                                          |
| 25) 제34수 제4구                     | 生衣不着身                            | 生衣不著身                            | 着과 著은 같은 뜻임.                                                                                                                                                                                                       |
| 26) 제38수 제목<br>제2구<br>제4구<br>제7구 | 何處春先到<br>橋東水北亭<br>冷酒著難醒<br>不勞人勸醉 | 何處春先到<br>橋東水北亭<br>冷酒著難醒<br>不勞人勸醉 | 『文苑英華』에는 시의 제목이 '春日偶題'로 되어 있음.<br>馬本에는 '北亭'의 '亭'이 '頭'로 되어 있으나 잘못임. 宋本, 那波本, 汪本, 『文苑英華』, 全詩에 의해 교정되었음.<br>『文苑英華』, 全詩, 汪本에는 '著難醒'의 '著'이 '酌'으로 되어 있고, 汪本, 全詩의 주석에는 '著'으로 되어 있음.<br>『文苑英華』에는 '不勞人勸醉'가 '更無人勸飲'으로 되어 있음. |

| 구분                            | 중종 10년<br>초주갑인자훈임보자본<br>(A본)     | 주금성 전주의<br>『백거이집전교』<br>(B본)      | 전주(箋注)                                                                                                                                                                              |
|-------------------------------|----------------------------------|----------------------------------|-------------------------------------------------------------------------------------------------------------------------------------------------------------------------------------|
| 27) 제39수-제58수<br>제39수 제6구     | 金銀用斷車                            | 金銀用斷車                            | 馬本에는 '斷車'의 '斷'이 '短'로 되어 있으나 잘못임.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 全詩의 주에 '斷'은 '短'이라 한 주석도 있는데 잘못임.                                                                                    |
| 제42수 제4구<br>제7구               | 瑞鵬勸袍花<br>戎裝拜春設                   | 瑞鵬勸袍花<br>戎裝拜春設                   | 馬本, 汪本에는 '瑞鵬'의 '鵬'이 '鶴'로 되어 있으나 잘못임. 宋本, 那波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함. 汪本에는 '鵬'이라 한 주석도 있고, 全詩에도 '鶴'이라 한 주석도 있지만 모두 그르다. '鵬'이 옳다. 拜春設의 設은 수, 당시대에는 '伎藝'를 이름. 白居易詩에는 '看春設'인데 후대의 판본에서 '拜春設'이 됨. |
| 제43수 제4구<br>제5구<br>제6구<br>제8구 | 歧秀麥分花<br>五匹鳴珂馬<br>雙輪畫軾車<br>葉葉集輿斜 | 歧秀麥分花<br>五匹鳴珂馬<br>雙輪畫軾車<br>葉葉集輿斜 | 那波本, 汪本, 全詩에는 '歧秀'의 '岐'가 '岐'로 되어 있음. 城按에 의하면, 六朝 이래로 '路多從止'에 의해 『爾雅』에도 '岐'라 하였다. 那波本, 汪本에는 '畫軾'의 '軾'이 '戟'으로 되어 있음.                                                                  |
| 제45수 제6구<br>제7구               | 香騰把下車<br>宋家宮擗髻                   | 香騰把下車<br>宋家宮擗髻                   | B본의 '騰'이 해석상 옳음.                                                                                                                                                                    |
| 제47수 제8구                      | 旣恐日光斜                            | 只恐日光斜                            | 旣와 只는 뜻이 비슷함.                                                                                                                                                                       |
| 제50수 제5구                      | 投餌移經楫                            | 投餌移經楫                            | 楫과 楫은 동자(同字)임.                                                                                                                                                                      |
| 제51수 제8구                      | 江轉富楊斜                            | 江轉富陽斜                            | 富陽은 지명이며 B본의 '陽'이 옳음.                                                                                                                                                               |
| 제52수 제3구<br>제7구               | 十分杯裏物<br>中山一沈醉                   | 十分盞裏物<br>中山一沉醉                   | '杯'와 '盞'는 같은 뜻이며, '盞'가 '杯'의 속자(俗字)이고, '沈'와 '沉'은 같은 뜻이며, '沉'이 '沈'의 속자임.                                                                                                              |
| 제53수 제4구                      | 曲落岸邊花                            | 曲洛岸邊花                            | 曲洛은 '同輒曲洛'에서 유래한 것으로 B본의 '洛'이 맞는 글자임.                                                                                                                                               |
| 제55수 제5구<br>제7구               | 鼓應投壺馬<br>彈碁局上事                   | 鼓應投碁馬<br>彈碁局上事                   | 이 시는 탄기(彈碁)의 바둑놀이를 노래한 것이므로 A본 '投壺'의 '壺'보다 B본 '投碁'의 '碁'가 맞는 글자이다. '碁'와 '碁'는 동자(同字)임.                                                                                                |
| 제58수 제7구<br>제8구               | 楊州蘇小小<br>人道最天(伊邪反)斜              | 杭州蘇小小<br>人道最天(伊邪反)斜              | 宋本, 那波本에는 '揚州'이고, 馬本, 汪本, 全詩에는 '杭州'이다. 송의 蘇小小는 그 墓가 楊州에 있고, 南齊의 蘇小小 묘는 杭州에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田子藝가 이르기를 '天 少好貌 卽妖也 卽邪歪也'라 한 것이니, 天의 발음은 '伊邪反'이 맞다.                              |
| 28) 제59수-제65수<br>제59수 제3구     | 初等高第客                            | 初等高第後                            | 那波本에는 '高第後'의 '後'가 '客'이고, 汪本에는 '日'임.                                                                                                                                                 |
| 제60수 제3구                      | 靑雲俱未達                            | 靑雲俱未達                            | 那波本에는 '不達'의 '不'이 '未'이다.                                                                                                                                                             |
| 제61수 제2구<br>제8구               | 朱門羨少年<br>爭過豔陽天                   | 朱門羨少年<br>爭過豔陽天                   | 宋本, 那波本에는 '羨少年'이 '美少年'이다.                                                                                                                                                           |
| 29) 제66수-제72수<br>제67수 제8구     | 相伴醉悠悠                            | 相伴醉悠悠                            | 那波本에는 '相伴'이 '相對'이다.                                                                                                                                                                 |
| 제68수 제6구                      | '沈舟十二三'                          | '沉舟十二三'                          | '沈'와 '沉'은 같은 뜻이며, '沉'이 '沈'의 속자이다.                                                                                                                                                   |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의 오언율시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 연구

| 구분                     | 종종 10년<br>초주갑인자훈임보자본<br>(A본) | 주금성 전주의<br>『백거이집전교』<br>(B본) | 전주(箋注)                                                                                            |
|------------------------|------------------------------|-----------------------------|---------------------------------------------------------------------------------------------------|
| 제71수 제3구<br>제4구<br>제6구 | 自賢誇智慧<br>相軋鬪功能<br>蛾焦爲撲燈      | 自賢誇智慧<br>相軋鬪功能<br>蛾焦爲撲燈     | 馬本에는 ‘智慧’의 ‘慧’는 ‘慧’로 되어 있는데 잘못임.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 盧校에 의거하여 개정함.<br>那波本, 汪本에는 相軋의 ‘軋’는 ‘軋’로 되어 있다. |

〈전주(箋注)의 출처〉

『문원영화(文苑英華)』: 명(明) 융연간(隆慶, 1567-1572)의 간본임.  
 왕본(汪本): 청(淸) 강희(康熙) 43년(1704) 왕립명(汪立名) 일우초당(一隅草堂) 간본(刊本)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노교(盧校): 청(淸) 노문초(盧文弨) 군서습포교(群書拾捕校)의 『백씨문집(白氏文集)』.  
 전시(全詩): 청(淸) 강희(康熙) 46년(1707) 양주시국(揚州詩局) 간본(刊本)의 『전당시(全唐詩)』.  
 송본(宋本): 문학고전간행사(文學古典刊行社) 영인의 송(宋) 소흥(紹興, 1131-1162) 본(本)인 『백씨문집(白氏文集)』.  
 나파본(那波本): 사부총간(四部叢刊) 영인의 일본 나파도원(那波道圓) 번각의 송본(宋本)인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마본(馬本): 명(明) 만력(萬曆) 34년(1606) 마원조(馬元調) 간행의 『백거이장경집(白居易長慶集)』.  
 하교(何校): 북경도서관(北京圖書館) 소장의 하작(何焯)이 교정한 일우초당(一隅草堂) 간본인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황교(黃校): 황의(黃夔) 교정본(校訂本).  
 성안(城按): 백거이(白居易) 저(著),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 1-5.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2008.

<표 2>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한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다.

3)의 A본 제4수의 제1구 ‘得道卽無着’이 B본 제4수의 제1구에는 ‘得道卽無著’이다. 7)의 A본 제9수의 제1구 ‘得道應無着’이 B본 제9수의 제1구에는 ‘得道應無著’이다. 25)의 A본 제34수 제4구 ‘生衣不着身’이 B본 제34수 제4구에는 ‘生衣不著身’이다. 26)의 A본 제38수 제4구 ‘冷酒着難醒’이 B본 제38수 제4구에는 ‘冷酒著難醒’이다. 네 시의 ‘着’이 ‘著’으로 바뀌었는데, 이들 글자의 뜻이 비슷하여 해석상의 차이는 없다. 9)의 A본 제11수 제6구 ‘沈吟踏月行’이 B본 제11수 제6구에는 ‘沈吟躡月行’으로 되어 있다. ‘踏’과 ‘躡’은 뜻이 같다. 16)의 A본 제19수 제7구 ‘慙君此傾聽’이 B본 제19수 제7구 ‘慚君此傾聽’으로 되어 있다. ‘慙’과 ‘慚’은 동자(同字)이다. 20)의 A본 제25수 제4구 ‘舟中祗有琴’이 B본 제25수 제4구에는 ‘舟中只有琴’이다. 27)의 A본 제47수 8구 ‘祗恐日光斜’가 B본 제47수 8구에는

‘只恐日光斜’이다. 두 시구의 ‘祗’가 ‘只’로 바뀌었는데, 두 글자의 뜻이 비슷하여 해석상의 차이는 없다. 27)의 A본 제43수 제5구 ‘五匹鳴珂馬’는 B본 제43수 제5구에는 ‘五疋鳴珂馬’로 되어 있다. ‘匹’과 ‘疋’은 같은 뜻의 글자이다. 27)의 A본 제45수 제7구의 ‘宋家宮搵髻’는 B본 제45수 제7구에서는 ‘宋家宮樣髻’이다. ‘搵’과 ‘樣’은 같은 뜻의 글자이다. 27)의 A본 제50수 제5구의 ‘投餌移經楫’은 B본 제50수 제5구에서는 ‘投餌移經槳’이다. ‘楫’과 ‘槳’은 동자(同字)이다. 27)의 A본 제52수 제3구 ‘十分杯裏物’이 B본 제52수 제3구에는 ‘十分盃裏物’이다. ‘杯’와 ‘盃’는 같은 뜻이며, ‘盃’가 ‘杯’의 속자(俗字)이다. 27)의 A본 제52수 제7구 ‘中山一沈醉’가 B본 제52수 제7구에는 ‘中山一沉醉’이다. 28)의 A본 제68수 제6구 ‘沈舟十二三’은 B본제 68수 제6구에는 ‘沉舟十二三’이다. 두 본의 ‘沈’와 ‘沉’은 같은 뜻이며, ‘沉’이 ‘沈’의 속자이다. 27)의 A본 제55수 제7구의 ‘彈碁局上事’는 B본 제55수 제7구에는 ‘彈棋局上事’이다. 탄기(彈棋)란 바둑판에 마주 앉아서 바둑돌을 튀겨서 상대편 바둑돌을 떨어뜨리는 놀이이며, ‘碁’와 ‘棋’는 동자이다. 28)의 A본 제60수 제3구는 ‘靑雲俱不達’이 B본 제60수 제3구에는 ‘靑雲俱未達’로 되어 있다. B본의 주석인 나파본(那波本)에는 ‘不達’의 ‘丕’이 ‘未’이다. 두 글자의 뜻이 비슷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없다. 28)의 A본 제61수 제8구 ‘爭過艷陽天’이 B본 제61수 제8구에는 ‘爭過豔陽天’인데, ‘艷’과 ‘豔’은 동자(同字)이다.

둘째,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6)의 A본 제8수 제3구의 ‘始知爲客樂’이 B본 제8수 제3구 ‘始知爲客苦’이다. ‘樂’이 ‘苦’로 바뀌었다. A본 3구와 4구와 해석은 ‘이제야 알겠구려. 객지에서의 즐거움이 가난한 내 집만 못하다는 걸’인데, B본 3구와 4구와 해석은 ‘이제야 알겠구려. 객지에서의 고통이 가난한 내 집만 못하다는 걸’이다. 너무 대조적인 글자여서 어느 해석이 옳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8)의 A본 제10수 제2구의 ‘巴南城底遊’가 B본 제10수 제2구는 ‘巴南城裏遊’이다. ‘底’가 ‘裏’로 바뀌었다. 해석은 ‘과남성 아래에서 놀았네.’가 ‘과남성 안에서 놀았네.’로 바뀌는데, 뜻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27)의 A본 제58수 제7구 ‘揚州蘇小小’가 B본 제58수

제7구에는 ‘杭州蘇小小’로 되어 있다. 송본(宋本), 나과본(那波本)에는 ‘揚州’이고, 마본(馬本), 왕본(汪本), 전시(全詩)에는 ‘杭州’이다. 송의 소소소(蘇小小)는 그 묘(墓)가 양주(楊州)에 있고, 남제(南齊)의 소소소(蘇小小)는 그 묘가 항주(杭州)에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楊洲’는 ‘揚州’로도 쓴다. 28)의 A본 제59수 제3구의 ‘初等高第客’이 B본 제59수 제3구의 ‘初等高第後’이다. 즉 ‘高第客’이 ‘高第後’로 되어 있다. 나과본(那波本)에는 ‘高第後’의 ‘後’가 ‘客’이고, 왕본(汪本)에는 ‘日’이다. 어느 글자가 옳은지 알 수 없다. 29)의 A본 제71수 제4구 ‘相軋鬪功能’이 B본 제71수 제4구에는 ‘相紉鬪功能’이다. 나과본(那波本), 왕본(汪本)에는 ‘相紉’의 ‘紉’는 ‘軋’로 되어 있어 어느 글자가 옳은지 알 수 없다.

셋째,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가 있다. 19)의 A본 제24수 제3구 ‘覺來蜚近壁’이 B본 제24수 제3구에는 ‘覺寒蜚近壁’으로 ‘來’가 ‘寒’으로 바뀌었다. 해석상 B본의 제3구가 다음에 오는 제4구와 연결이 잘 된다. ‘覺寒蜚近壁 知暝鶴歸籠 [추워지니 귀뚜라미가 벽에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어스름이라 학이 등지로 돌아옴을 알겠네]’이니 B본의 ‘寒’이 더 맞는다.

넷째, A본과 B본의 글자 중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다.

9)의 A본 제11수 제5구의 ‘寂默挑燈坐’가 B본 제11수 제5구에는 ‘寂寞挑燈坐’로 바뀌었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송본(宋本), 나과본(那波本), 노교(盧校)에 모두 ‘寞’이 ‘默’이라고 하였으니, A본의 ‘默’이 옳은 것임을 알 수 있다. 10)의 A본 제12수 제1구 ‘衰容常晚櫛’이 B본 제12수 제1구에는 ‘衰容當晚節’로 바뀌어 있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송본(宋本), 나과본(那波本)은 ‘當晚節’은 ‘常晚櫛’이 맞다고 하고, 왕본(汪本)과 전시(全詩)에는 통용자로 주석을 하고 있다. 원래는 ‘常晚櫛’이 맞는 것인데, 후대에 ‘當晚節’로 바뀌면서 여러 주석이 붙은 것으로 보아 뜻은 통용될지라도 초주갑인자본인 A본의 ‘常晚櫛’이 맞는 것이다. 18)의 A본 제22수 제7구 ‘平生閑境思’가 B본 제22수 제7구에는 ‘平生閑境界’로 서로 다르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송본(宋本), 나과본(那波本), 왕본(汪本)에는 ‘界’가 ‘思’이고, 전시(全詩)에는

‘思’로 주석되었으므로 A본의 ‘思’가 옳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A본과 B본의 글자 중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B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다.

18)의 A본 제22수 제2구 ‘深宜白鬢翁’이 B본 제22수 제2구에는 ‘深宜白髮翁’으로 표기되었다. B본을 대상으로 후대에 중국에서 교정한 송본(宋本), 나과본(那波本), 전시(全詩)에는 ‘鬢’이 ‘髮’이라고 하였으니, B본 ‘髮’이 옳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7)의 A본 제43수 제8구 ‘葉葉集攬斜’가 B본 제43수 제8구에는 ‘葉葉隼攬斜’로 되어 있다. B본의 ‘隼攬’가 해석상 뜻이 맞다. 일본 봉좌문고(蓬左文庫) 소장의 명종 20년(1563) 초주갑인자번각본에도 ‘隼攬’로 고쳐 새기고 있다.<sup>15)</sup> 27)의 A본 제45수 제6구의 ‘香牋把下車’가 B본에는 ‘香牋把下車’로 되어 있다. B본의 ‘牋’이 해석상 옳다. 일본 봉좌문고 소장의 명종 20년(1563) 초주갑인자번각본에도 ‘牋’으로 고쳐 새기고 있다.<sup>16)</sup> 27)의 A본 제51수 제8구의 ‘江轉富楊斜’가 B본제51수 제8구에는 ‘江轉富陽斜’이다. 부양(富陽)은 중국 절강성 항주 서쪽 교외에 있는 지명으로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문인들이 부양의 산수를 노래하였다. 따라서 B본의 ‘陽’이 맞는 글자이다. 27)의 A본 제53수 제4구의 ‘曲落岸邊花’가 B본 제53수 제4구에는 ‘曲洛岸邊花’이다. 중국은 주대(周代)에도 이미 ‘동계곡락(同禡曲洛)’이라고 해서 굵은 물가에서 불계(祓禡)를 행한 기록이 있으니 B본의 ‘洛’이 맞는 글자이다. 27)의 A본 제55수 제5구 ‘鼓應投壺馬’는 B본에는 제55수 제5구 ‘鼓應投棋馬’이다. ‘投壺’는 병이나 향아리 따위에 붉은 화살과 푸른 화살을 던져 넣어 화살의 숫자로 승부를 가리던 놀이이고, ‘投棋’는 탄기(彈棋)의 바둑놀이이다. 따라서 이 시는 탄기(彈棋)의 바둑놀이를 노래한 것이므로 A본 ‘投壺’의 ‘壺’보다 B본 ‘投棋’의 ‘棋’가 맞는 글자이다. 27)의 A본 제58수 제8구 ‘人道最天(伊邪反)斜’는 27)의 B본 제58수 제8구에는 ‘人道最天(伊耶反)斜’로 되어 있다. 전자예(田子藝)가 이르기를 ‘天 少好貌 卽妖也 卽邪歪也’라 한 것이

15) 姜順愛,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27.

16) 姜順愛,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27.

니, 夭의 발음은 B본의 ‘伊耶反’이 맞다. 29)의 A본 제71수 제6구 ‘蛾焦爲撲燈’이 B본의 제71수 제6구에는 ‘蛾焦爲撲燈’으로 되어 있다. 이 시구의 해석상 ‘못 나방이 불에 타 죽음은 등불에 부딪쳐서네.’라는 의미에 비추어보면, B본의 ‘撲’이 더 맞는 글자이다.

② B본에 나타나는 전주의 주석이 본문의 해석을 원만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1)의 제1수 제4구인 ‘與月有秋期’와 제8구인 ‘唯是我心知’는 명(明) 용경(隆慶, 1567~1572) 간본인 『문원영화(文苑英華)』에는 ‘秋期’의 ‘秋’는 ‘愁’이고, ‘我心’의 ‘我’는 ‘好’이다. 시의 3구와 4구는 ‘共琴爲老伴 與月有秋期’로 ‘거문고는 늘그막에 반려가 되고, 달과는 가을을 약속하였네’라고 해석이 되는데, 4구의 ‘秋’를 ‘愁’로 바꾸면 ‘달과는 가을을 근심하였네’로 바뀌어 해석이 훨씬 부드럽다. 또 7구와 8구는 ‘幽音待清景 唯是我心知’로 ‘그윽한 소리 맑은 경치를 기다리니, 오직 내 마음만이 알리라’ 라고 해석이 되는데, 8구의 ‘我’를 ‘好’로 바꾸면 ‘오직 좋은 마음만이 알리라’로 바뀌어 시의 의미에 더 합당하다. 4)의 제5수 제3구인 ‘青巖新有燕’은 ‘푸른 바위에 제비가 깃드네’로 되어 있는데, 노교(盧校)에서 ‘燕’을 ‘雁’으로 교정하였으니 ‘푸른 바위에 기러기가 깃드네’로 해석되어 훨씬 멋진 시가 된다. 27)의 제42수 제7구의 ‘戎裝拜春設’의 주석을 보면, ‘設’은 수, 당시대에는 ‘伎藝’를 뜻하고, 백거이 시에는 ‘看春設’인데 후대의 판본에서 ‘拜春設’이 되었다고 한다.<sup>17)</sup> 이 주석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무장한 이들이 봄날 잔치의 기예(伎藝)를 구경할 썰’로 되어 다음 구절과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럽다.

③ A본과 B본의 시 제목이 같은데 B본의 주석에 시의 제목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

9)의 A본과 B본 모두 제11수 제목은 ‘夏夜宿直’인데, 왕본(汪本)에는 ‘夏州宿直’이다. 제11수 ‘夏夜宿直’은 51세이던 장경 2년(822)에 장안에서 중서사인(中

17)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三 (上海古籍出版社, 2008), 1827-1838.

書畧人)으로 있을 때 승명루(承明廬)에서 여름 숙직을 하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것으로 원래 제목에 들어있는 ‘夏夜’가 교정된 ‘夏州’보다 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11)의 A본과 B본 모두 제13수 제목은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인데, 馬本에 ‘上巳’를 ‘上元’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하고,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이라 하므로 원래의 제목이 맞는 것이다. 15)의 A본과 B본 모두 제18수 제목은 ‘西河雨夜送客’인데, 『文苑英華』에는 ‘西河’는 ‘江西’로 되어 있다. 다른 교정본의 예시가 없으므로 ‘西河雨夜送客’의 제목이 합당하게 여겨진다. 23)의 A본과 B본 모두 제32수 제목은 ‘池上贈韋山人’인데, 『文苑英華』에는 제목이 ‘池上贈山人韋君’으로 되어 있다. 다른 교정본의 예시가 없으므로 ‘池上贈韋山人’의 제목이 합당하게 여겨진다. 26)의 A본과 B본 모두 제38수 제목은 ‘何處春先到’인데, 『文苑英華』에는 제목이 ‘春日偶題’로 되어 있다. 다른 교정본의 예시가 없으므로 ‘何處春先到’가 시의 제목으로 옳은 듯하다.

## 6.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중당시대(中唐時代, 766~826) 중국문학사에 서 배출된 많은 시인들 중 이백(李白)과 두보(杜甫) 이후 가장 걸출한 시인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백거이는 중앙과 지방에서 보직을 하면서 당시에 저명한 시인, 문학자, 정치가들과 시를 주고 받았다. 그중 전기(傳奇) 작가인 진홍(陳鴻), 유우석(劉禹錫), 원진(元稹)은 평생의 막역한 친구였다. 그는 스스로 ‘시마(詩魔)’라고 할 정도로 시작에 몰두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고체시(古體詩), 금체시(今體詩), 악부(樂府), 가행(歌行), 부(賦) 등의 시가 및 지명(誌銘), 제문(祭文), 찬(贊), 기(記) 등에 이르는 모든 문학형식을 망라했다. 백거이가 지은 작품 수는 ‘白氏長慶集後序’에 의하면, 3,840편이다. 다만 백거이가 회창 6년(846)에 세상을 떠났으니 회창 5년(845) 5월 이후의 작품이 편입되지 않았다. 그는 8차례 시를 편집하여

모두 75권의 시문집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71권이 남아 있다.

2) 『향산삼체법』의 오언율시는 72수인데 제1수-제38수까지는 단일 제목이고, 제39수-제58수, 제59수-제65수, 제66수-제72수는 연작시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평성(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眞’ 6회, ‘歌’ 5회, ‘東’ 5회, ‘尤’ 4회, ‘庚’ 4회, ‘支’ 4회, ‘侵’ 4회, ‘先’ 3회 등이다. 5율은 2·4·6·8구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것이 정격이고 5율의 1구에서 압운하는 것이 변격이다. 이러한 변격의 예를 보면, 제14수, 제24수, 제27수, 제32수, 제35수 등이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의 오언율시는 모두 『백거이문집』에서 선집되었는데, 주금성(朱金城)의 『백거이집전교(白居易集箋校)』를 참고하면, 권13/7수, 권14/4수, 권15/1수, 권16/4수, 권17/1수, 권19/3수, 권20/1수, 권23/1수, 권24/1수, 권25/6수, 권26/21수, 권27/16수, 권28/2수, 권34/3수, 권37/1수로 도합 72수이다. 『향산삼체법』에 수록된 백거이 시에 대한 저작 관련사항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저작 당시의 벼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작시기는 30세 이전에 6수, 30대에 3수, 40대에 8수, 50대에 48수, 60대-70대 사이에 7수이다. 50대의 저작이 48수로 가장 많이 선집되었고, 40대, 60대, 30세 이전은 6-8수 사이이며, 30대가 3수로 가장 적었다. 저작 장소는 장안(長安) 31수, 낙양(洛陽) 26수, 강주(江州) 6수, 강남(江南) 1수, 항주(杭州) 1수, 양주(襄州) 1수, 장안-강주 1수, 낙양-소주(蘇州) 1수, 장소미상 4수였다. 저작 장소는 주로 장안과 낙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거이의 저작과 관련된 벼슬을 보면, 29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이후, 다양한 벼슬을 거쳤는데, 이러한 벼슬살이는 그의 저작시기 및 저작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되면서 시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향산삼체법』 오언율시의 내용에는 대부분 백거이의 일상이 담겨 있다. 그의 일상 안에 담겨진 것을 몇 가지 키워드로 도출하면 ‘봄’ 25수, ‘술’ 16수, ‘가을’ 13수, ‘감회’ 12수, ‘이별’ 3수, ‘겨울’ 3수로 6 분야의 72수이다. ‘봄’을 노래한 시의 내용들은 따사롭고 정겨우며 행복하다. 제9수, 제13수, 제16수, 제27수, 제38수, 제39수-제58수의 25수이다. ‘술’을 노래한 것은 제18수, 제23수, 제59수-제65수, 제66수-제72수의 16수이다. ‘가을’을 노래한 것은 제1수, 제5수, 제6수, 제12수,

제14수, 제15수, 제19수, 제24수, 제26수, 제31수, 제33수, 제34수, 제37수의 13수이다. ‘감회’를 노래한 것은 제10수, 제11수, 제20수, 제21수, 제22수, 제25수, 제28수, 제29수, 제30수, 제32수, 제35수, 제36수의 12수이다. ‘이별’을 노래한 것은 제2수, 제3수, 제4수의 3수이다. ‘겨울’을 노래한 것은 제7수, 제8수, 제17수의 3수이다.

4)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인 『향산삼체법』과 중국의 주금성(朱金城) 전주(箋注)의 『백거이집전교』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본과 B본의 원문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A본과 B본의 글자가 유사한 한자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례들이 있는데, ‘着’과 ‘著’, ‘踏’과 ‘躅’, ‘祗’와 ‘只’, ‘匹’과 ‘疋’, ‘掾’과 ‘樣’, ‘不達’과 ‘未達’의 ‘不’과 ‘未’, ‘碁’와 ‘棋’, ‘艷’과 ‘豔’은 뜻이 같은 글자이다. ‘慙’과 ‘慚’, ‘戩’과 ‘楫’은 동자(同字)이다. ‘杯’와 ‘盃’는 같은 뜻이며, ‘盃’가 ‘杯’의 속자(俗字)이다. ‘沈’와 ‘沉’은 같은 뜻이며, ‘沉’이 ‘沈’의 속자이다. 둘은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始知爲客樂’의 ‘樂’과 ‘始知爲客苦’의 ‘苦’, ‘巴南城底遊’의 ‘底’와 ‘巴南城裏遊’의 ‘裏’, ‘初等高第客’의 ‘高第客’과 ‘初等高第後’의 ‘高第後’, ‘相輓鬪功能’의 ‘相輓’과 ‘相糾鬪功能’의 ‘相糾’는 어느 해석이 옳은지 가늠하기 어렵다. ‘揚州蘇小小’가 ‘揚州’가 ‘杭州蘇小小’에는 ‘杭州’로 되어 있다. 송의 소소소(蘇小小)는 그 묘(墓)가 양주(楊州)에 있고, 남제(南齊)의 소소소(蘇小小)는 그 묘가 항주(杭州)에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楊洲’는 ‘揚州’로도 쓴다. 셋은 A본과 B본의 글자가 대조적이지만,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覺來蝨近壁’의 ‘來’와 ‘覺寒蝨近壁’의 ‘寒’은 해석상 B본의 ‘寒’이 더 맞는다. 넷은 A본과 B본의 글자 중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A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는데, ‘寂默挑燈坐’의 ‘默’과 ‘寂寞挑燈坐’의 ‘寞’, ‘平生閑境思’의 ‘思’와 ‘平生閑境界’의 ‘界’는 후대의 주석을 참고하면 A본의 ‘默’과 ‘思’가 옳은 글자였다. ‘衰容常晚櫛’의 ‘常晚櫛’과 ‘衰容當晚節’의 ‘當晚節’은 원래 ‘常晚櫛’이 맞는 것인데, 후대에 ‘當晚節’로 바뀌면서 여

러 주석이 붙은 것으로 보아 뜻은 통용될지라도 A본의 ‘常晚櫛’이 맞다. 다섯은 A본과 B본의 글자 중 후대의 주석본을 참고하면 B본의 글자가 더 옳은 경우가 있는데, ‘深宜白鬢翁’의 ‘鬢’과 ‘深宜白髮翁’의 ‘髮’, ‘葉葉集撫斜’의 ‘集撫’와 ‘葉葉集旗斜’의 ‘集旗’, ‘香牋把下車’의 ‘牋’과 ‘香箋把下車’의 ‘箋’, ‘蛾焦爲撲燈’과 ‘蛾焦爲撲燈’은 후대의 주석을 참고하면, B본의 ‘髮’, ‘集旗’, ‘箋’, ‘撲’이 해석상 옳다. ‘江轉富楊斜’와 ‘江轉富陽斜’의 부양은 지명으로 B본의 ‘富陽’이 맞는 글자이다. ‘曲落岸邊花’와 ‘曲洛岸邊花’의 곡락은 ‘동계곡락(同禩曲洛)’에서 유래한 말로 B본의 ‘曲洛’이 맞는 글자이다. ‘鼓應投壺馬’와 ‘鼓應投棋馬’는 탄기(彈棋)의 바둑놀이를 노래한 것이므로 B본 ‘投棋’의 ‘棋’가 맞는 글자이다. ‘人道最天(伊邪反)斜’와 ‘人道最天(伊耶反)斜’는 전자예(田子藝)에 의하면 ‘天’의 발음은 B본의 ‘伊耶反’이 맞다.

둘째, B본에 나타나는 전주의 주석이 본문의 해석을 원만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與月有秋期’와 ‘唯是我心知’는 「문원영화(文苑英華)」에는 ‘秋期’의 ‘秋’는 ‘愁’이고, ‘我心’의 ‘我’는 ‘好’로 주석하였고, ‘靑巖新有燕’은 노교(盧校)에서 ‘燕’을 ‘雁’으로 교정하였으며, ‘戎裝拜春設’은 ‘看春設’로 주석하였다. 해석상 주석본의 글자인 ‘愁’, ‘好’, ‘雁’, ‘看春設’이 시의 의미에 더 합당하다.

셋째, A본과 B본의 시 제목이 같은데 B본의 주석에 시의 제목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었다.

‘夏夜宿直’이 왕본(汪本)에는 ‘夏州宿直’으로 주석하였고,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는 馬本에 ‘上巳’를 ‘上元’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하고, 宋本, 那波本, 汪本, 全詩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이라 하였으며, ‘西河雨夜送客’은 「文苑英華」에는 ‘西河’는 ‘江西’로 되어 있다. ‘池上贈韋山人’은 「문원영화」에는 ‘池上贈山人韋君’으로 되어 있다. ‘何處春先到’는 「文苑英華」에는 제목이 ‘春日偶題’로 되어 있다. 각각의 주석에 시의 제목이 왜 변경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어있지 않아 원래의 제목인 ‘夏夜宿直’,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 ‘西河雨夜送客’, ‘池上贈韋山人’, ‘何處春先到’가 옳은 듯하다.

<참고문헌>

- 姜順愛.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第45輯(2010), 5-32.
-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고서해제』 11. 서울: 평민사, 2008. 427-434.
-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 중종 10년(1515)경.
- 白居易 著, 李瑢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 명종 20년(1563).
- 白居易 著, 朱金城 箋注. 『白居易集箋校』 1-5. 上海古籍出版社, 2008.
- 심우준. 『『香山三體法』 연구』. 서울: 一志社, 1997.
-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3-120.
- 『中宗實錄』 卷23, 10年 乙亥 11月 乙酉(3日)條. 한국데이터베이스연구소,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千惠鳳. “甲寅字本 鑑識의 諸問題.” 『蒼史李春熙教授定年紀念論叢』(1993). 19-47.
- 허경진.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2008). 95-118.
- 황위주. “韓國本中國試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3집(2003). 317-337.
- 花房英樹. 『白氏文集の批判的研究』. 190-191.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9b0650a>> [cited 2010. 4. 20].
- <[http://cu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http://cu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 [cited 2010. 4. 20].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2219a>>. daum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cited 2010. 4. 20].